

주일 예배 순서

- 사순절 제4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37:3-6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39장(새 39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새 127번(스크린참조)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저희를 사시어 당신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상황과 환경에 놀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에 게을렀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믿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불신앙 또한 회개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셔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므로 실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직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의 진정한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누가복음 14:25-27 인도자
- 찬양(Anthem) 찬양대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자기부인(5) - 자기애를 내려놓는 것

- 봉 헌(offering) 356장(새 216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512장(새 315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 다음 주일 친교 후 믿음 속회로 모입니다.ㄹ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장석순할머니)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믿음, 소망속] 고린도후서 7:1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우리의 혼과 육을 아우르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원은 반드시 왜곡된 신앙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겉은 신자이지만 속사람(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각(혼)이나 가치관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교인이면서도 신앙인 인양 행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며 삽시다.

<말씀묵상> 누가복음 14:25-27

25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자기 부인(마 16:24-26)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6절) 나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고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왔습니까?
2.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7절)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며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오고 있었습니까?

❖ 우리는 사도바울이 말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지금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딤후 3:1,2) 그중의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자신을 위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자기계발이나 자존감의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이기적이 되어야 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결과가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것이며, 이기심이 모든 죄의 근원임을 알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상처나 아픔에 몰두하다 보니 오히려 역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간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집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미움과 멸시와 학대와 고통을 받아오며 살았지만,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시선을 돌리고 나의 몸을 사용하여 그를 섬길 때 알게 되고 타인에 의해 형성된 일그러진 자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작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학문이나 이론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상처를 사용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요4:28,29,39)*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남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소외감이 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